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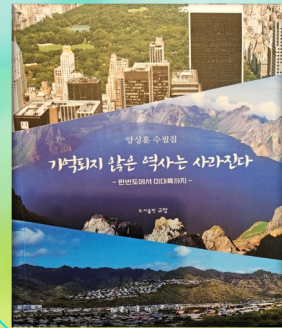
박유니스 수필집 『그린 힐 언덕 위에』 출간



작가는 책머리에서 ‘팬데믹동안 밖의 세상과 단절되어 역으로 밖의 세상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며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거기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의 붓끝에 걸렸고 나 아닌 타인의 삶이 시야에 들어왔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내 인식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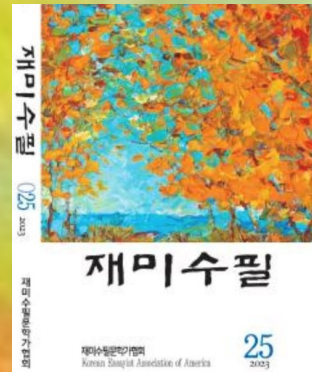


양상훈 수필집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진다』 출간



글 한 편 한 편마다 수필가의 진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글을 읽노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필의 맛에 빠져들 것이다. 수필가의 주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글을 읽으며 참으로 오랜만에 양상훈 수필가의 '역사의 별곡' 속으로 깊이 침잠한다.

—이운홍시인 · 소설가 '권두언' 중에서



재미수필 제25집 출간 (2023년 12월)

외원 45명 작품 수록

자유제 75편

테마 / 25, 그 의미 4편

특집 / 디카 에세이 9편

제9회 재미수필문학상 1편

제18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5편

총 340 페이지

연락처: jaemisupil2021@gmail.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85호

퓨전수필

2024 Spring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01 이현숙	협회장 발간사	봄은 그렇게
02 피전득	고전 수필	봄
03 문태준	주천 시	산수유나무의 농사
04 제10회 재미수필문학상 공모 및 제19회 신인상 작품 공모		
06 유숙자		봄처럼 살고 싶다
07 홍용익		주홍빛 햇살
09 김 원	낭만 가이(Romantic Guy)	
10 김혜자		연인의 날
12 성민익		죽아받아 마땅한 날
13 독고운옥		I LOVE YOU!
14 김미키		봄
15 이영신		‘시’ 같은 말
16 김영화		오지랖
18 김양혜		서두름의 지에
19 유튜브 소개 & 워비남부 현황(1월~3월 31일)		
20 봄호 행사	양상운 외 7명	<봄그리고>
협회소식 및 회원 동정 / 타 문인협회 소식		
<신간 소개> 박유니스 수필가 『그린 힐 언덕 위에』		
양상운 수필가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진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 월례회 —
 ZOOM MEETING / 대면모임
 — 연락처 —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KEAA)
 4946 East 6th St., LA, CA 90022
 YouTube: 재미수필
 Website: jaemisupil.com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 지역별 모임 안내 —
 (작품 합평 · 문법 수업 · 친목 도모 등)
 * 밸리방: 이리나 llee439@yahoo.com
 * 엘에이방: 이정호 jlee511640@sbcglobal.net
 * 토렌스방: 최숙희 choisookhi@gmail.com
 * 오렌지방: 이희숙 heesookyoo220@gmail.com
 * 알바인방: 권조앤 jannkwon1208@gmail.com
 * 온동네방: 박진희 jinheepgh@gmail.com

봄은 그렇게



요즈음 날씨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3월인데 갑자기 비와 우박이 내리고 기온 차가 심하다. 미네소타에 사는 회원은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주었다. 어젯밤 뉴스에서는 눈발을 뚫고 나오는 어린 곰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봄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으슬으슬 한기를 느낀다. 세상을 떠난 지인들로 마음이 어전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친구가 밥이나 같이 먹자고 집으로 불렀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돼지고기 수육과 얼큰한 닭볶음탕, 바삭바삭한 야채 튀김과 파실파실파 감자가 섞인 감자밥. 정갈한 음식들이 식탁에서 우리를 맞았다. 친구가 오늘의 주메뉴라며 봄동 곁절을 투명한 유리그릇에 꾸밈하게 담아 내왔다.

“와우!” 눈이 먼저 마증을 나가며 감탄사가 나왔다. 밥을 푼 수저 위에 봄동을 듬뿍 얹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지며 입안 가득 봄이 툭툭 터졌다. 그 기막힌 맛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금방 밥그릇과 접시를 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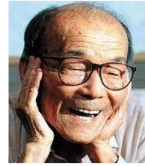
봄을 마중하기에는 봄동만 한 것이 없다. 봄 향기 그득한 한 상을 차려 낸 친구의 센스에 ‘엄지척’ 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봄기운이 스멀스멀 몸에 온기를 전달하는지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했다. 역시 계절 음식이 보약이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선식지 후약지(先食治 後藥治)’ 라고 했던 원로 작가의 말씀이 생각났다.

계절에 상관없이 원하는 식재료를 구할 수 있지만, 계절 음식의 깊은 맛은 웅내 내지 못한다. 뿌리를 통해 전달된 대지의 에너지에 더하여 그 계절의 햇살 한 자락과 바람 한 줄기의 도움 때문이리라.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걸 알지 못했다. ‘모든 시간과 계절이 기쁨의 선물을 생산하고 있다’ 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연>에서 말했다. 시간이 주는 기쁨의 선물을 나는 올려보냈다. 때가 되면 오는 자연의 혜택을 얼마나 놓쳤는지 아쉽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과 컴퓨터를 뒤로하고 돌로 나선다. 부드러운 구름과 바람, 파랑게 고개를 내미는 작은 풀잎. 봄이 그렇게 벌써 와있었다.

회장 이현숙



인생은 빈 술잔, 주단 깔지 않은 층계, 사월은 천치(天癡)와 같이 중얼거리고 꽃 뿌리며 온다.'

이러한 시를 쓴 시인이 있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읊은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런 사람들이다. 나같이 범속(凡俗)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두꺼운 옷을 벗어 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띄우고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문학을 업(業)으로 하는 나의 기쁨의 하나는, 글을 통하여 먼 발자취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젊음을 다시 가져 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잃었던 젊음을 잠깐이라도 만나 본다는 것은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헤어진 애인이 여자라면 똥똥해졌거나, 말라 바스라졌거나 둘 중이요, 남자라면 낡은 털 재킷이 축 늘어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빛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지나간 날의 애인에게서는 환멸(幻滅)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

린 젊음에게서는 안타까운 미련을 가진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煩惱)를 해탈(解脫)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무디어진 지

성(知性)과 둔해진 감수성(感受性)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혜(智慧)도 젊음만은 못하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퍼센트가 사십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사십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 앞장세우고 봄이 와요.'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나비는 작년에 왔던 나비는 아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 제비는 몇 놈이나 다시 올 수 있을까?

키츠가 들은 나이팅게일은 4천 년 전 루스가 이역(異域) 강냉이밭 속에서 눈물 흘리며 들던 새는 아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에 불사조(不死鳥)라는 화려한 말을 써 본 것이다. 나비와 나이팅게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은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것이다.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

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윤패(幽閉)되어 있는 김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아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져 오는 봄!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1970~)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들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 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봄꽃이 핀다. 팡팡 소리를 내는 것처럼 경쾌하게 꽃이 핀다. 날이 흐려도, 비가 내려도 꽃봉오리는 부지런히 때를 찾아 핀다. 반자연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인 줄만 알았더니, 아직도 자연은 제 할 일을 해주고 있다니. 이런 섭리를 느끼는 순간에는 감사함이 깃든다. 겨울을 이겨낸 봄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전해준다.

오늘 아침에 보니 매일 오고가는 길목에 선 나무도 노랗게 봄꽃을 달고 있다. 꽃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무의 종류를 알게 되었다. 노랗고 자잘한 꽃을 피운 그 나무는 산수유나무였다. 바야흐로 이제 산수유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으니 문태준 시인의 이 시를 읽을 때가 되었다. 바로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시이다.

봄에는 '개나리 노란 꽃그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시를 보면 또 다른 노란 꽃그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시인은 산수유나무꽃을 일반인의 시선보다 훨씬 깊게 읽어낸다. 마치 땅의 농부처럼 산수유나무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나무의 농사가 성공하면 그 덕은 우리들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곧 다가올 여름 한때 산수유나무 밑에서 땀을 식힐 한 사람을 위해 산수유나무는 일찍부터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의 섭리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이라니. 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딱 좋은 장면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제10회 ‘재미수필문학상’ 공모

본 협회에서는 제10회 ‘재미수필문학상’ 을 공모합니다.

한인 고유의 정서와 미국에서 체득한 삶을 수필로 풀어내는 미주 수필가의 작품은 역사의 기록이자 수필의 영역을 넓힌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작가에게 문학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독자에게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접수: 현재 활동하는 회원의 추천서에 의함
- * 후보 자격: 수필 등단과 본 협회에 5년 이상, 수필집 두 권 이상을 출간한 작가
- * 상금: 1,000불
- * 구비자료: – 추천서
 - 후보자의 약력, 연락처
 - 문학 활동 및 문단 경력
 - 2년 내 문예지 또는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표 수필 3편
 - 작품집 1권 동봉
- * 접수 마감: 2024년 6월 30일 (당일 우편 소인 유효)
- * 수상자 발표: 2024년 7월 중 통보
- * 시상식: 2024년 11월 16일(토) <재미수필 25집> 출판기념회 · 시상식 및 송년회
- * 접수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KEA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 * 문의: 323-440-1051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 * 기타: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다른 곳에 응모한 작품이나 허위, 표절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취소함

재미수필문학상 운영위원: 유숙자 공순혜 이현숙

제19회 <재미수필신인상> 공모

본 협회에서는 제19회 ‘재미수필신인상’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필가로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신인상 공모에는 글쓰기에 취미를 가진 해외 한인으로 문단에 미등단하신 분이든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이민의 이야기, 자전적인 많은 편린을 수필로 그려 작가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 –

* 응모요령: 신작 수필 3편 (어느 매체에도 발표하지 않은 작품)

A4용지 2매 내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시상: 당선작 1명 – 500달러 & 상패

가작 1명 – 300달러 & 상패

장려 2명 – 상패

* 접수 마감: 2024년 6월 30일

* 입상자 발표: 2024년 7월 개별 통보

* 시상식: 2024년 11월 16일(토) <재미수필 26집> 출판기념회 · 시상식 및 송년회

* 접수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EA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 문의: 323-440-1051 /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 유의사항

– 원고 말미에 주소와 전화번호 및 본명 기재할 것

–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작품 수준에 따라 당선, 가작, 장려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현재 활동 중인 기성문인의 응모는 무효 처리함

– 다른 곳에 응모한 작품이나 허위, 표절이 발견될 시 수상을 취소함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이현숙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 눈이 쌓여 있어도 햇살은 어딘지 모르게 봄기운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매일 아침 걸을 때 보면 산은 날이 다르게 파스텔을 문질러 놓은 듯 희뿌옇게 보여 멀지 않아 겨울이 꼬리를 감출 것 같다.

도시의 가로수는 활기찬 생명력을 지닌 채 계절과 상관없이 푸르다. 더러 기죽은 갈색도 있으나 눈에 띄게 잎을 떨구지는 않는다. 드문드문 섞여 있는 활엽수 만이 가지 끝에 머무는 햇살을 받기며 새로 싹 틔울 봄을 기다리고 있다. 사철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은 남가주에 살면서도 봄은 옛되고 가냘픈 새순으로부터 오리라고 기대한다.

지난해 여름 오렌지카운티로 이사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처음 도착한 곳이 LA 북쪽 발렌시아였고 글렌데일에서 35년을 살다가 세 번째로 옮긴 거주지이다.

미션비예호에 사는 큰아이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서부터 자신 집 가까이에서 이웃하며 지내기를 원했다. 남편이 빨리 컬리지에서 81세에 은퇴하고 나니 글렌데일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어져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산수가 훌쩍 넘은 나이에 이사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겪는 경험이었으나 짐을 줄이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중에서도 40여년간 품고 있던 책의 비중이 컸다.

아마도 이번 이사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최소한의 물건만 추렸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짐을 거의 다 정리 했다고 한숨 놓았을 때 2개의 상자가 복병처럼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오래전부터 모아 두었던 편지와 카드가 베시시

얼굴을 내민다. 해마다 받은 우편물 중 서너 개를 추려 간직했던 삶의 정겨움, 그리운 친구들의 정감 어린 음성이 시간을 거스르고 있다. 콧마루가 시큰거린다.

내가 삶에서 맛볼 수 있었던 아름다웠던 순간들, 그 황홀한 흔들림은 사라지고 지난날 우리들의 이야기만 눈처럼 쌓인다. 마음을 다스리느라 며칠을 보내고 나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 이사 준비에 거의 1년이 걸렸다. 짐을 정리하며, 삶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여유와 인생 여정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나름대로 의미가 컸다.

새집은 동쪽 전면이 창문이어서 전망이 시원하다. 동틀 무렵 서광이 신비롭고 밤이면 내 집 창으로 내리는 달빛이 한가롭다. 그 정경은 꿈속에서만 머물 것 같은 아득함이 있어 좋다.

세월을 입을 때마다 지을 때마다 일상에 깊이 몰입하여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이제 익을 대로 익은 나이가 되고 보니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노을이 타고 있다. '창백한 파란 점 *1 (Pale blue dot)에 내리는 불꽃 없는 화염, 이글 이글 타는 불이 바다를 삼킨다. 노을을 삼키는 저 새 한 마리, 하늘 향한 비상이 웅숭깊다. 붓 없이 그린 그림, 형태 없는 색채의 향연, 연기 없는 협죽곡이 남긴 것은 어두움, 철흑 같은 어둠이다. 그 태에서 빛은 태어난다. 하루도 쉼 없이 빛나는 햇살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어둠 속에는 꼭꼭 숨은 빛이 이글거릴까. 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밝아온다.

주홍빛 노을이 잊히지 않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았다. 1971년에 개봉된 미국영화로 그보다 먼저 뮤지컬로 공연되고 최근(2022)까지 공연된 작품이다. 오래전에 본 영화라 내용은 다 잊었어도 그 첫 장면이 인상 깊었다. '왜 지붕 위에서 연주하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내 잊었다가, 최근 주홍빛 노을이 아름다운 날 다시 봤다. 혼례를 통한 세 딸의 결혼을 통해 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이 있다. 혁신은 전통을 파괴하는 불안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석양이 지면 여명이 뜨듯이 사회는 언제까지나 현재의 풍속으로 머물지 않는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오래전부터 행해지는 행동은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된다. 그 전통이 변하는 과정의 한 면을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보여준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신앙심 깊은 유대인 테비에의 딸들의 결혼을 통하여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말한다. 영화 시작 첫 장면에서 전통의 파괴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불안함을 보이면서 세 딸의 혼인에서 사위 선택의 기준이 변함을 보여야 한다. 갈등 없는 변화가 있을까. 테비에 가족의 경우, 세대 간의 갈등이다. 부모와 딸들의 가치관 갈등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애가 바탕이 되어 진화하는 인간정신을 보인다.

세 사위 모두 부모가 원하는 선택은 아니다. 첫째 사위는 가난한 재봉사 둘째 사위는 급진적 공산주의자여서 둘 다

없는 자유로움이 좋다. 고달픔과 번민, 어려움과 고통을 기도로 바꾸어 나갈 때 일상이 별것으로 빛나기 시작하며 조금은 관대해지고 삶을 현명하게 바라볼 여유가 생겨 나이를 든다는 것이 서글픔 만이 아닌 편안함도 함께 와서 좋다.

전부터 사두고 읽지 못했던 시집을 꺼내 들고 한가한 한때를 즐긴다. 지친 영혼을 청정케 해주는 신선함, 생기가 돈다. 오래전에 써두었던 연작 시가 여러 편 있어 그 세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필 자국이 흐릿하여 연도를 보니 까마득하다.

누군가 쓴 글이 생각난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그때일까? 그대일까?"

새 장막에서의 첫 봄을 맑고 향기롭게 맞고 싶다. 다시 봄을 꿈꾸며 봄처럼 살고 싶다. 마음이 봄이라 해서 새롭게 꽃이 피어날 리 만무지만, 사르르 꽃물결 너머로 사라져간 세월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허기진 감성을 푸르고 윤택하게 보듬어 줄 봄이고 싶다. 비록 내 모습은 겨울이어서 연초록 푸르름과 거리가 멀다 해도 삶의 경이감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계절에 이 계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봄비가 내린다. 생명을 잉태시키는 단비. 어김없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봄처럼 경탄스러운 생명의 신비가 또 있을까. 비를 맞으며 가슴 가득 비로 채우고 싶다.

인생의 황혼 고즈넉한 트락에서 촉촉이 젖어드는 행복감, 봄 속에 머물며 봄처럼 살고 싶다.

J



⇒ P 7쪽에서 연결

처음엔 거부당하지만 종래엔 같은 유대인이어서 사위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러시아인이자 유대인 신앙이 아닌 셋째 사위는 거부한다. 그 결과 딸은 가족과 단절되지만 결국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세 딸도 마찬가지다. 개혼인 첫째의 혼례식에서 유리컵이 구둣발 아래서 깨어지는 장면에서 단절을 암시한다. 과거와의 절연이다. 첫째는 자유연애를 주장하고 허락을 요구한다. 둘째는 허락은 필요 없고 축복만이 필요하다면서 키이우에서 들어온 유대인 공산주의자를 따라 떠난다. 셋째는 이방인이자 크리스천 러시아 청년과 사랑에 빠져 도망친다. 전통은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전통의 주체는 사람이기에 늘 사회는 변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결정권자인 아버지는 전통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갈등하면서도 종래엔 변화를 수용한다. 사안에 따라 전통과 쇄신을 보여주는 유연성에 사람들은 공감하나보다. 이는 오십 년 이상 세월을 두고 되풀이되는 수많은 공연 횟수가 말하고 있다. 해 뜨고 해지는 세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화석 같은 전통은 없다. 이는 세상 사는 이치 아닐까.

햇살이 가시광선에서 무지개색을 다 가졌듯이 사람도 다양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얼마 전에 한 소식을 접하고 슬펐다. 세상 어느 곳에서 한 여인이 히잡쓰기를 거부하다 아버지로부터 매 맞아 저세상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 소식이 오래 가슴에 남는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것, 내일은 시가 사람과 대결하는 시대가 올까. 세월이 변해도 개개인의 감정이나 정당한 요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여명 속 밝은 해는 석양 후에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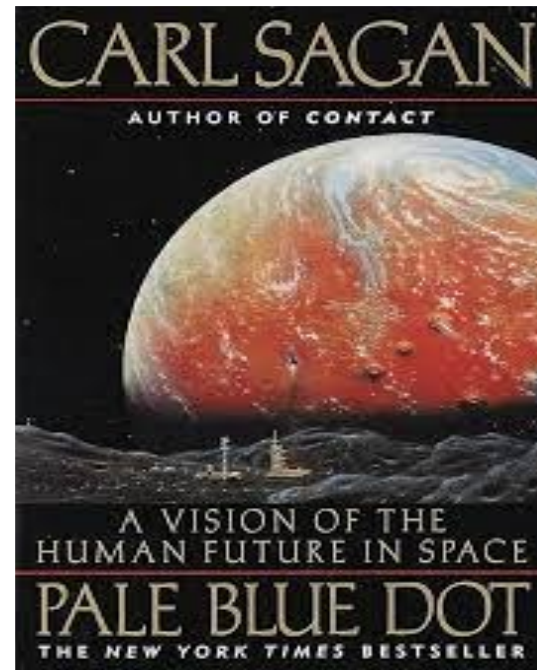
땅거미가 내린다. 어느 곳에서 히잡을 쓰지 않아 새

처럼 날아간 한 여인이 애처로운 날이다. 그녀는 지금 마음껏 날 수 있는 세상에 있을까. 문득, 주홍빛 저녁놀에 그 얼굴이 내려앉는다. 검은 하늘을 떨치고 선흥빛 여명으로 사라져간 그녀는 어디쯤 날고 있을까.

타오르는 저 노을은 불꽃 없이 이글대는 그녀의 뉘 일까. J

주

*1. 'Pale Blue dot' 패일블루닷은 1990년에 전래 없이 먼 거리에서 (6billion kilometer distance) 보아져Voyager space probe 1호가 찍은 사진. 칼 세이건(Carl Sagan)이 이 사진을 본 후에 한 말.



서울에 사는 벗은 연년생으로 두 딸을 두고 있다. 이 둘은 삼십 대 중반으로 모두 출가했다. 그중에 막내 N은 황송하게도 무명작가인 나를 자신의 멘토라고 한다. 대학 진학 때 학과 선택도 나의 조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 칠 년 정도 잘 다니다 느닷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간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떠났다. 이때도 N은 나에게 조언을 구해 왔었다.

오래전 유행했던 광고 문구가 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N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자신에게 후한 포상을 해도 된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나무와 풀과 꽃을 만나고, 순례자를 만나고, 자신과 만나리라, 산과 들과 새와 대화하고, 순례자와 대화하고, 자신과 대화하리라. 그 만남과 대화가 어떤 힐링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남과 대화 속에서 참된 나 자신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소중하리라.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나, 이런 파격과 도전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더없이 좋으리라. 아니, 인생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응원해 주었다.

한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인연을 만나 한국에 돌아와 얼마 안 돼 결혼까지 했다. 이 청년도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갔던 것이다. 둘은 나이도 29 동갑이고 회사 다니다 그만둔 것도 같고, 등등 둘은 대화가 너무 잘 통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들은 곧바로 경력직 사원모집에 각각 대기업에 재취업해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N에게서 나에게 고견을 구한다며 이메일이 왔다. 자신과 남편이 오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올 삼월 일 년 예정으로 세계일주여행을 떠날 계

획이라는 것이다. 이제 N은 굳이 나에게 충언을 구할 필요가 없는 성인이다. 혹시 N은 나의 응원을, 이해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나는 그 전과는 정반대의 충고를 했다.

“자네들 나이가 삼십 대 중반이니 회사는 퇴직하지 말고, 일이 년 돈을 더 모아 집부터 장만하는 게 먼저 아닐까? 긴 인생에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숙고하길 바라네. 자신들을 위한 여행이란 포상을, 미래를 위해 미루는 것도, 현명한 결단이 될 수 있다네.

또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 뜻깊은 일이니, 부부가 진지하게 논의해 보시게나.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별했으면 좋겠네. 부모와 형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도, 훌륭한 인생이라네.”

물론 이들이 세계 일주 여행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 지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상황에서 답한 것이기에 얼마나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다. 전형적인 끈대의 답변이지만 진심이었다.

흔히들, 젊었을 땐 진보적이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나도 보수적으로 변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진보적이라면 이런 도움말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어쩌다 뒷방 늙은이로

P 10쪽



➡ P 9쪽에서 연결

전략했을까. 변화, 모험, 도전, 이러한 가치들을 난 언제부터 멀리했을까. 이번 생은 진보적 이념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구태의연한 대답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작가다. 창작하는 예술가다. 창작은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는다. 답습은 아무리 잘해도 복사나 모방일 수밖에 없다. 고로 창작의 고통, 지남함이란 오롯이 “새로움”을 구현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이다. 이미 내려오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작가는 그래서, 도전적일 수밖에 없으며 호전적일 수밖에 없다. ‘전복을 꿈꾸는 자’, 전복이란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는 전복으로부터 시작되고 달성될 수 있다. 반역을 꿈꾸는 것은 창작자의 운명이다. 끝없는 변모,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작가의 숙명은 보수적 가치와 상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나 자신도 모르고, N에게 고리타분한 회답을 한 것이다. 이 일을 안 동무는 나 보고 낭만 가이(Romantic Guy)가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농을 해 왔다. 친구는 인생을 적지 않게 경험한 초로의 노인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쯤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영원한 낭만 가이(Romantic Guy) 내가,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는 것이다. J

연인의 날 / 김혜자



오늘은 연인의 날. 사랑을 확인하는 발렌타인 데이 (Valentine's Day)이다. 옛날 로마 시절 발렌타인 사제가 황제 허락 없이 사랑하는 젊은 남녀를 결혼시킨 죄로 처형당한 날이다. 발렌타인 사제가 순교한 날, 2월 14일은 연인들이 마음의 선물을 주고받는다. 사랑의 날, 아름다운 꽃이나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선물은 무엇일까? 봄 향기 밀려오듯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달콤한 키스는 어떨까?

키스는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의 숭고한 감정이며 키스는 입술을 통해 애정과 환희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 보고 나면 좀처럼 잊기 힘든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화가의 작품 ‘키스’를 보면 온몸이 떨린다. 황금빛 가운을 입은 여인이 화려한 모습이 아름답다. 남자 손은 여자 얼굴을 힘주어 안고 여자는 살며시 남자의 손을 감싸안은 모습이 육감적이고 도발적이며 또한 성스럽게도 느껴진다.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인에 대한 상상의 날개를 펴본다. 비밀스러운 작가의 강렬한 관능적인 사생활을 훑쳐보는 기분이 든다.

‘키스’라는 주제 그림을 그린 화가는 많다. 프란체스코 하예츠(Francesco Hayez, the Kiss)의 은은한 조명 아래, 몸매가 드러난 비단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에서 열게 풍기는 향기가 아찔하고 눈이 부시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 는 황홀한 순간을 느끼게 한다.

키스도 문화와 생활 문명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는 환영과 작별 인사로 입술을 볼에 키스하며, 이런 습관은 중동이나 유럽 남자에게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슬람 국가는 술과 키스가 금지되어 있다. 이집트 카이로 공원, 약혼자가 공공장소에서 키스했다는 이유로 24시간 교도소에 감금됐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추운 에스키모인과 남태평양의 마오리족은 서로 코를 비비는 것이 키스가 아닌 전통적인 인사법이다.

텍사스 대학 셸리 박사(Dr. Shelley, University of Texas) “키스의 과학(The Science of Kiss)”이란 논문에는 “키스는 마법

이 아니다. 화학 반응인 신경과학이다. 키스는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로 마음이 흥분되고 열정적인 키스는 혈관을 크게 확장하여 많은 산소가 공급된다.”라고 발표했다. 사랑의 키스 한 번에 약 3.8 칼로리 에너지가 소모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키스를 하는 사람은 평균 5년 정도 오래 산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인간 이외 키스하는 동물이 드물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 종류의 보노보(Bonobo)는 싸운 뒤 키스로 화해한다.

키스는 프랑스 문화, 최고의 산물이다. 프랑스 남자는 여자의 립스틱을 먹고 산다고 한다. 프랑스의 명물은 에펠탑도 루브르 박물관도 아닌 바로 키스라고 한다. 서로 숨결을 느끼며 입속에서 혀가 춤추는 진한 프렌치 키스(French Kiss)가 바로 그것이다. 낭만적인 사랑의 기교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행복하다. 키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밀착된 힘, 떨리는 맥박 진동, 백권의 연애소설보다, 박동하는 키스는 가슴에 설렘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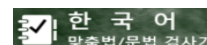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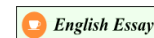
눈을 감고 봄 빛소리를 듣는다. 내 몸에서 풀잎 향기가 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팔레트의 온갖 물감을 풀어 나만의 작품을 그려보고 싶다. 가슴 위에 그림을 그려본다. 존재해야 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어울림이 다시 태어난다. 진리의 빛줄기가 스며든 마음은 환희로 빛난다. 달콤한 키스는 언제나 행복을 가져오기에... J



- * 벨리방(Zoom) / 1월 11일 2월 10일(대면) 3월 7일
- * 엘에이방(Zoom) / 1월 11일 2월 10일(대면) 3월 7일
- * 토렌스방(대면) / 1월 22일 2월 19일 3월 25일
- * 오렌지방(Zoom) / 1월 15일 2월 26일 3월 25일
- * 알바인방(Zoom) / 1월 16일 2월 20일 3월 19일
- * 온동네방(Zoom) / 1월 28일 2월 25일 3월 31일

‘재미수필’ 웹사이트 안내 jaemisupil.com

- * 웹사이트에서 English Essay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
- * 창작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 협회 회원에게 개인 서재를 제작해 드립니다.(가설비용 50불)
- * 웹사이트 가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jaemiupil2021@gmail.com
- * 활동을 중단한 회원은 등업에 준하여 하향 조정합니다. 협회회원 >>> 일반회원
- * 작품 퇴고에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활용하십시오. >>>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생일에는 엄마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태어남을 위해 아기가 한 일이 뭔데? 엄마는 배 안에서 열 달 내내 구역질로 시작하여 쿵쿵 차대는 발길질까지 견뎠는데. 좋아하던 커피도 못 마시고 감기에 걸려도 약 하나 못 먹고 생으로 끙끙 앓았는데. 그 힘들고 긴 여정을 끝내는 날에는 또 어떠했나? 온몸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침대 위에서 버텼는데. 죽을힘을 다해 몸 밖으로 아기를 밀어내며 휴우 살았다. 안도의 숨을 겨우 쉴 수 있었는데. 아기는 대체 그날 뭘 했다고 생일 축하를 받느냔 말이다. 정말로 축하하는 고생한 엄마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해마다 생일이라고 축하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올 엄마 이 날 많이 고생하셨겠네.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생일을 맞는다는 건 내가 축하받을 일이 분명하다. 그것은 일년을 잘 살아왔다는 뜻이 아닌가? 사람에게 가장 일반적인 사망 원인은 노화와 질병과 사고인데.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도 덜미 잡히지 않았고 신문 지면을 채우는 수많은 사고도 요리조리 잘 피해왔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 분명하다. 호들갑을 좀 뜯다 보면 그 크고 작은 사건에게 내 삶이 가격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거기다 더하여 좋은 사람들과 만나 수도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365일, 8760시간을 잘 보냈으니 어찌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닌가. J





한 겨울, 남가주 도시에 비가 내리면 산 정상에 눈이 쌓인다. 도심에 지친 이들에게 설산을 보는 일은 하나의 축복이며 휴식이다. 예기치 못했던 겨울 산행에 나선 아침이다. 마운트 볼디는 초행이어서 산자락 동네 전경이 새롭다. 어느 집은 유럽의 산장 같기도 하고, 비탈길 골목은 겨울 나그네, 악상을 떠올리며 거닐던 슈베르트를 만나게 될 것 같은 착각도 하게 된다. 산 중턱부터 바람을 타고 유희하는 싸라기 눈발이 차창에 부딪히며 환영사를 대신한다. 눈까지 선물 받는 기쁨에 가파로운 산을 오르며 힘든 것도 잊는다.

눈바람을 맞으며 싹을 키우는 이름 모를 나무들과 작은 꽃봉오리를 매달고 희망에 가득한 줄기를 본다. 눈꽃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솔방울이 뒹굴며 한뼉한다. 눈 속에 반쯤 몸을 가린 도토리도 강추위에도 끄떡없다는 자존감에 차 반들거리고 있다.

산 정상 가까이서 들리는 폭포 소리에 또 한 번 놀란다. 급경사로 내리꽂히는 위력이 여상치 않다. 운무에 싸인 산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아쉬움을 더해 그런지 무겁다. 못내 섭섭하여 바위 밑에 쌓여 있는 눈 위로 친구는 고별사를 기록한다. I LOVE YOU!

I LOVE YOU! 산울림이 되어 귓전에 와닿는다.

“창세 전부터 기획한 나의 뜻을 네가 아느냐?” 마운트 볼디에서 듣게 된 음성이다. J





활짝 핀 복사꽃 나무 사이로 분홍빛 하늘이 보인다.

나른한 햇살 아래 두 무릎 세우고 앉아서

졸듯 말듯 감기는 눈으로 사색에 잠겼는데

살랑살랑 스쳐 가던 봄이 넌지시 속삭인다.

“넌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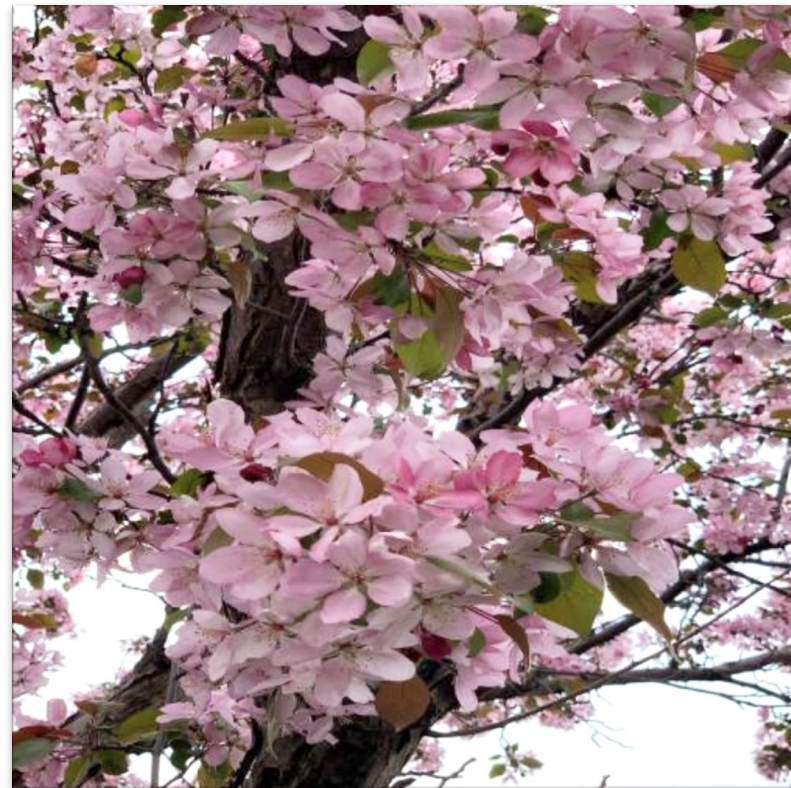
손짓하고 고개 들어 쳐다보니

아.. 눈 부셔라...

봄, 너는 정말...

몽글몽글 설렘이

봄을 쫓아 퍼져간다.





“아, 광합성 충전 하시는군요?”

회사 점심 자투리 시간에, 별 좋은 현관 앞 난간에 기대 서 있는 나를 보고 젊은 사원들이 건네는 말이다. 이런 별찌기를 우린 일광욕이라 하였는데 요즈음은 광합성 충전이라고 말하나 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말, 정말 기지가 넘친다. 그런가 하면 준말이 넘쳐나 도통 알아듣질 못하겠으니 도무지 적응이 안된다. 이러한 세태적 준말의 범람은 유행을 타는 한때의 슬랭도 아닌 것 같다. SNS 시대의 흐름 따라 말의 표현이 디지털화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관망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편리하기만 하면 아무래도 좋은 '표현의 이기'가 아닐까 못내 마뜩잖다. 준말의 추세가 세태적 대세로서의 표현의 자유라 이해해도, 어떤 자유든 책임 의식의 전제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웅고집의 고리타분한 편견에 지나지 않을까?

이 놀라운 격변의 시대에,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함으로의 편중은 당연한 흐름이라 해도, 우리 삶의 기본 된 말의 품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혀를 차게 된다. 한마디로, 준말의 고착화가 자유분방의 기세를 타고 가장 표준화 해야 할 신문 사설에서조차 슬며시 한발 들이밀고 있는 양상에 화들짝 거부감이 든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꼰대의 구세대적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별수가 없다. 준말이 일상화되는 신세대 화법을 따라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고수할 밖에.

'고전(classic)이 왜 고전이라? 구식과는 차별되어 지켜내고 싶은 언제까지나 좋은 것이기 때문 아니겠는가?'라는 글을 들춰 뇌이며, 준말의 대세가 비단 나 혼자만의 우려가 아닌듯하여 그나마 위안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 된다. 따라서 우리들 한사람 한마디 말

의 흐름이 합류해, 그 시대 사회 전체 풍조를 나타낸다 하겠다. 우리 고유문화는, 가까운 사이더라도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예절을 중요시 해 왔다. 말의 절도가 미치는 품격이, 삶의 품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침이다.

오래 전, 막내가 아직 청소년 때의 일이다. 아들에게 별스럽지 않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돌아온 대답이 불손에 가까웠다. 당황하여 다그쳤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연사를 쓸 수 있는가?”라고.

아들은 거침없이 응답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말했을 뿐이야.” 한마디 말이 정곡을 찔렀다. 아들의 한마디가 전광석화로 나를 비추어, 아들이 보는 엄마의 모습을 변명의 여지 없이 들추었다. 나 스스로 아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연사만을 썼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참담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날을 계기로 아들에게 하는 나의 말은 외마디 외침조차 다듬어 곱고 자 했다.

그런 후 한참 세월이 흐른 어느날, 어엿한 직장인이 된 성년의 아들이 해맑게 나를 바라보며 느닷없이 말했다. “엄마가 하는 말은 모두 시 같아!” 놀라운 뜻밖의 예찬에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거나 할까? 벽간 감동으로 말을 잃었다.

P 16쪽 ➡



➡ P 15쪽에서 연결

아들이 엄마의 말이 ‘시’ 같다 함은, 엄마 일생 전반을 걸친 일생일대 고귀한 찬사가 아니겠는가? 엄마 말을 시로 듣는 우리 아들 이야말로 시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윗물이 맑게 흘러내리면 아랫물도 맑듯, 말도 흐름을 탄다. 내가 쓰는 말이 고우면 그 고운 말이 흘러 다른 고운 말들과 합류해, 고운말 우리 사회 풍조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와야! 엄마, 저 노을 낀 하늘 좀 봐!” 한국말이 서툰 대학생 아들이 갑자기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엉겁결에 당장 시야에 들어온 하늘을 가리켜 ‘노을 낀 하늘’이라고 가르쳤다. 곧잘 따라 하는 아들의 기지가 신통하다 싶으면서도, 이런 형용구의 서정적 감이, 한국말 초보 아들에게 전달되기는 할까?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오늘, 엄마 말은 ‘시’라고 말해 준 아들이, 노을의 장관을 이룬 하늘을 향해 노을 낀 하늘이라는 표현의 맞춤법을 적용을 한 것이다.

엄마의 즉흥 현장학습으로 따라 해 본 한마디 형용구에는, 아마도 그때의 풍경과 정취까지 담겨 있어서, 지금껏 아들 기억에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었나 보다. ‘노을 낀 하늘’이라는 시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응용하는 아들의 재치가 조금은 놀랍고 자랑스럽다.

한마디 고운 말이 심어져 고운 말의 꽃을 피운다. 보라! 말솜으로 창조된 세상 모든 것은, 아름다운 말을 품고 있다. 아름답게 꽃피우는 일은 우리들 몫이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J



년 후를 맞아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국내 여행에 나섰다.

엘에이 공항에서 만난 일행들과 목인사를 나누었다. 국내 여행이어선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다. 노년에 부부가 건강하게 여행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노인 중에는 불편해 보이는 다리로 혼자 오신 분도 있었다.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솜털 같은 흰 구름을 타고 창밖의 풍경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날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눈에 덮인 로키산맥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 병풍이 둘러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비가 뿌리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덴버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솜털 같은 흰 구름을 타고 창밖의 풍경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날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눈에 덮인 로키산맥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 병풍이 둘러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비가 뿌리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덴버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인솔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터미널로 가는 트램에 올랐다. 트램이 정차할 때와 중간에도 많이 흔들렸다. 많은 승객 중에 연세 드신 여자인 분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작은 가방을 의지하고 넘어질 듯 서 있는 모습이 염려스러웠다.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 하자 주제님께 무슨 상관이나는 듯 눈을 흘기고 내 옆에 그냥 서 있었다. 그리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넘어져 머리가 트램 문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내가 그녀의 팔을 붙들어 무사히 목적지에 함께 내렸다.

오지랖은 한복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한다. 앞자락이 길다 보면 발에 밟혀 넘어지기 쉽기에 자신의 앞자락이나 잘 간수하라는 뜻이다. 현재 이 말의 뜻은 간섭할 필요도 없는 남의 일에 주제님께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라고 한다.

내 오지랖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육 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 숙제 챙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는 동

생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동생이 잘하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은 쌀쌀한 날씨다. 빨간 사암석으로 둘러싸인 Red rock Amphitheater에 들어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공연이 시작되었고 예약이 안돼서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이곳은 1,500석이 늘 만석이 된다고 한다. 비틀즈를 비롯한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와서 공연했다. 끝도 없이 넓은 초원을 지나 와이어임의 주 도시인 사이언 시의 호텔에 도착했다. 금방이라도 비나 함박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우산을 챙겨서 호텔에 가방만 내려놓고 나왔다. 음식점에서 저녁을 하고 나오니 우박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호텔까지 걸어서 10여 분 걸리는 시멘트 길, 돌서덜릿 길은 미끄럽고 회색 구름으로 시야도 흐려지고 날씨가 추우니 서둘러 걷게 되었다. 일행 중에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걸으시는 80대 남자분이 함께 걷게 되었다. 내 남편과 잘 걸으시는 분이 우리 바로 앞서 갔다. 앞서가는 분의 부인과 나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과 나란히 걸었다. 비에 젖어 미끄러워진 돌서덜릿 길을 걷는 다리가 불편하신 남자분이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즉흥적으로 그분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분의 팔을 짊 붙잡아 드렸다. 호텔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분은 슬그머니 내 팔을 풀며 “우리 집사람이 보면 야단나요.” 하셨다. 내 오른편에서 걸으시던 분이 웃음을 참느라 넘어질 뻔했다. ‘아, 내 오지랖!’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다음날에 가끔 내리는 비를 맞으며 소들이 풀을 뜯는 끝도 없이 넓은 초원을 지나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의 큰 바위 얼굴에 왔다. 해가 쨍하고 나와서 4명



의 대통령 얼굴 조각이 하얗게 잘 보였다. 1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선택하고 조각한 Gutzon Borglum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계단을 올라오다 소나무 그늘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점심으로 바나나와 사과, 땅콩 쿠키를 먹고 있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수십 개의 계단을 엄마보다 먼저 올라와서 내 앞에 섰다. “목이 마르니? 배고프니?” 하고 묻자 손가락을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에게 나에게 있는 쿠키와 물을 건넸다. 그 순간 뒤 따라 올라오던 아이의 엄마는 “멈춰. 쿠키를 먹지 마!”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하는 내게 “아이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라고 하지 않는가?

수십 년을 간호사로 일하고 은퇴했지만 지금도 어디서든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버스 안에서든 비행기 안에서든 길을 걷다가도 어려움에 부딪친 상황을 보면 반사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반응을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오지랖은 심각하니 자제하라고 남편은 충고한다.

3박4일의 러시모어, 크레이지 호스, 로키산맥 정점 (Alpine)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짧은 여행을 통해서 내 오지랖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불편한 마음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지랖은 삼가야겠다. 하지만 요즘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처럼 이웃끼리 예의를 지키며 서로서로 돌보아 주는 오지랖이 아니고 배려하며 살고 싶다. J



"오늘 꼭 제출해야겠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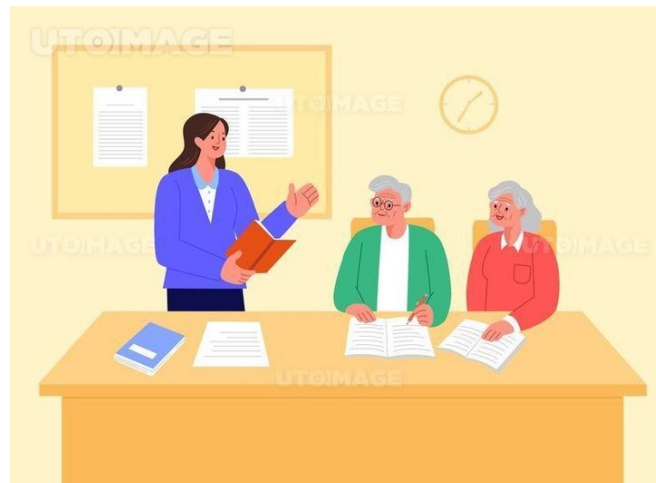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기한이 두 달도 넘게 남았는데, 당일 처리를 부탁하시는 것이다. 시니어 리빙의 모든 주민이 다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가 그런 편이다. 메디칼 (Medi-Cal) 갱신 서류이든, 교통 할인 카드 갱신이든, 기한이 두어 달 남아도 모든 처리는 지금 당장. 콰잇 나우. Right now. 나는 내 손님들의 리듬에 맞춰 일이 몰리는 날만 제외하고는 당일 처리를 해드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한 행동 양식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대체 왜 이렇게 서두른단 말인가!

작년 5월, 조카가 한국에 다니러 갔다. 모처럼 인편이 생겼다며 신이 나신 엄마는 조카의 한국행이 정해진 직후,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보내라고 하시더니 바로 쇼핑에 돌입하셨다. 엄마에게 조카가 미국으로 돌아올 날까지 두 달도 더 남았으니 천천히 다니시라고 했다. 그러나 엄마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다. "애, 내가 한 달 뒤에 눈이 또 안 좋아질지,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게 될지 어떻게 아니. 나이 먹으면 내일 일을 더 모르는 거란다.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해둬야 해.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때는 알 거다."

나는 엄마의 말씀에 무릎을 '탁' 쳤다. 손님들도 어찌면 '우리 엄마처럼 몸의 컨디션을 장담하기 어려워 그동안 급행 처리를 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고 보면, 일찌감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안달 부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속내를 알고 나면 매사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두 가지 이상의 지병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노년층에겐 건강 상태를 장담할 수 없기에, 일 처리에 있어서 기한보다 앞서 나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했으리라. 학교에서 노년의 건강과 심리, 복지 프로그램 등 많은 이론을 배웠지만, 나는 결코 노년의 삶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 손님들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며, 때로는 예측불허의 응급 상황을 겪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몇 발짝 앞서가야, 만사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노년의 삶을 통해 깨달으셨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론은 배웠으되 실전 경험이 없는 나는, 엄마 말씀처럼 그 나이가 되어 보지 않아서 서두름의 이유를 전혀 몰랐다. 이 깨달음의 순간 이후 나는 손님들의 급행 신청에 대해 단순한 이해를 넘어, 존경심마저 들기 시작했다. 원숙한 노년 삶의 기예에 감탄하면서, 삶에는 이렇듯 변수의 묘미가 있다. J



#01 2022년 5월 6일 협회 연혁과 활동
#02 동인지 <재미수필> 계간 <퓨전수필>



-재미수필문학상-	#21 박진희	#40 아듀! 2022	#59 김정숙	#81 퓨전-가을호
#03 제4회 유숙자	#22 김수영	#41 유숙자	#60 이정호	#82 김석연
#04 제6회 공순해	#23 정조앤	#42 공순해	#61 박진희	#83 김영교
#05 제7회 조만연	#24 신순희	#43 퓨전-겨울호	#62 이명숙	#84 유영주
#06 제8회 이현숙	#25 신혜원	#44 양상훈	#63 정유환	#85 김혜자
#07 백인호	#26 이정호	#45 이리나	#64 이진용	#86 김수영
#08 조옥동	#27 배헬레나	#46 이혜숙	#65 이현인	#87 아듀! 2023
#09 김영교	#28 이희숙	#47 백인호	#66 우연실	#88 출판기념회
#10 김석연	#29 퓨전-가을호	#48 김수영	#67 김영국	#89 조만연
#11 정찬열	#30 이원택	#49 김석연	#68 한남옥	#90 제9회 문학상
#12 박유니스	#31 우연실	#50 박유니스	#69 퓨전-여름호	한 영
#13 성민희	#32 최숙희	#51 김혜자	#70 이희숙	#91 조옥동
#14 한 영	#33 임지나	#52 한 영	#71 배헬레나	#92 퓨전-겨울
#15 퓨전-여름호	#34 조모제스	#53 김카니	#72 이리나	#93 신순희
#16 박신아	#35 유영주	#54 신혜원	#73 양상훈	#94 이희숙
#17 김카니	#36 노영매	#55 퓨전-봄호	#74 전월화	#95 김정숙
#18 최미자	#37 곽남인	#56 최미자	#75 이혜숙	#96 최숙희
#19 김혜자	#38 출판기념회	#57 권조앤	#76 문학세미나	#97 전월화
#20 권조앤	#39 전월화	#58 김영교	#77 유숙자	#98 장명옥
			#78 조모제스	#99 독고윤옥
			#79 공순해	#100 김영교
			#80 박유니스	

* 유튜브 조회수 3만 8천 2백 / 유튜브 구독자 6백명 (3월 31일 현재)

* 협회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 이현숙 회장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or sook1961@hotmail.com

연락처: 323-440-1051

2024년 회비납부 현황 (1월~3월 31일)

- * 연회비 / 이진용 장명옥 김영화 김탁제 김미키 공순해 김혜자 이현인 이명숙 이종운 노영매 이영신 김영애 독고윤옥 한남옥
- * 이사회비 / 유숙자 이희숙 이현숙 정조앤 이리나 신혜원 한 영 권조앤
- * 26집 출판비 / 이진용 공순해 김혜자 유숙자 이명숙 이종운 노영매 이리나 장명옥 김영애 이현숙 한 영 한남옥 권조앤
- * 협회 후원금 / 김탁제 이진용 김영교
- * 서재개설비 / 김영화 장명옥 이영신 김영애 독고윤옥
- * 본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정산해 주십시오)
- * 2024년 회비 / 연회비 \$120 / 이사회비 \$200 / 출판비 \$150 / 서재 개설비 \$50 / 후원금
- * 회비 납부처 / Pay to the Order: KEAA *문의 / jaemisupil2021@gmail.com
주소 / 정조앤 (JOANNE CHUNG) 22702 FONTHILL AVE., TORRANCE, CA 90505



조성환 작가 25회 <무영신인문학상>수상 – 단편소설 <떠도는 별>

무영신인문학상은 '농민문학'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운' 흙의 작가' 이무영(李無影·1908~1960) 선생의 문학혼과 작가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양일보가 제정한 문학상입니다.

시상식은 4월19일 오전11시 이무영 선생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열리는 31회 무영제 행사장에서 진행됩니다. 당선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봄 행시 / 봄 그리고

<웹사이트 접수 순>

양상훈

봄나들이 축제에 꽃향기 물씬
그립던 입을 만난 날
리본으로 장식한 그대 모습이
고결한 자태, 천사로 비치네

이현인

봄날 손녀와 함께
그림 그리고 말놀이를 하며
리리 릿자로 끝나는 말은
고운 얼굴 노엘 리(손녀의 이름)

김미키

봄꽃이 잔뜩 흐드러져서
그리움이 울컥 밀려오는 밤
리듬에 고개를 끄덕이다
고향을 노래하며 잠 못 드는 밤

이희숙

봄을 알리는 작은 새야
그리 정겹게 노래하니
리듬 맞추는 네 가락은
고향 언덕에 가 닿는구나!

배헬레나

봄은 이제 어디쯤 오시고 있을까?
그리움 줄기차게 내리던 겨울비
리듬 타고 신나게 퍼붓던 소나타
고즈넉히 뉘 놓고 경청하곤 했는데.

이정호

봄비 맞으며 떠난 그대
그리움과 아쉬움에 사무쳐
리스본 항구 안개 속
고요한 물결 위 새가 되었네!

신순희

봄날에 태어난 그이는
그림자 홀로 남기고
리무진 타고 떠나누나
고독하다 마지막 길

박유니스

봄갈이 끝나고 첫 장날에
그렁그렁 눈에 눈물 담고
리어카 뒤에 매달려서
고샅길로 멀어져 가던 우리 송아지



협회 소식 및 회원 동정

- * 박유니스 수필가 출판기념회 일시: 5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DoubleTree by Hilton Buena Park
- * <봄문학축제> 개최 / 재미수필, 재미시협, 미주문협 연합
일시: 4월 27일 오전 8시 출발 장소: Cachuma Lake
- * 3월 17일(Zoom) 공순해 수필가 강의 오후 5시
- * 임선주 어머님 장례 일정 3월 8일 3pm 로즈힐 스카이채플
- * 2월 17일(토) 오전 11시 양상훈 수필가 출판기념회
- * 이희숙, 이현인 수필가- 경희 사이버 대학 졸업
- * 오레곤문인협회 김혜자 회장 연임
- * 1월 31일 임시 이사회

타 문인협회 소식

- * 재미시협(Zoom) 강사: 유성호 교수 일시: 3월 22일 6pm
- * 윤동주 미주문학상 수상 / 박시걸 시인, 오연희 시인
- * 재미시협(Zoom) 강사: 황정산 교수 일시: 2월 24일 6pm
- * 미주문협(Zoom) 강사: 성석제 소설가 일시: 2월 26일 6pm
- * 미주문협(Zoom) 강사: 이승하 교수 일시: 2월 6일 6pm
- * 재미시협 / 제3회 정지용 해외문학상 공모 마감: 3월 4일
- * 제12회 고원문학상, 제31호 <문학세계> 출판기념회
- * 미주문협 / 손홍규 소설가 zoom 강의 일시: 1월 25일 6pm

편집후기

한 주 전 안자보레고사막주립공원(Anza-Borrego Desert State Park)을 다녀왔습니다. 삭막하기 그 지없는 곳이었지만 올봄에 유난히 많은 비와 눈이 내려서 노랑, 보라, 주홍빛의 꽃단지가 큰 바다를 이루며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수필협회에도 스며들어서 오는 소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글 많이 쓰십시오. <조앤>

창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4년**
봄호 (4월~6월)
통권 제85호
발행일 2024년 4월 10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YouTube: 재미수필
Website: 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
편집인 정조앤
jchung315@yahoo.com
이리나
llee439@yahoo.com

봄비가 많이 오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수필집을 출간하신 박유니스, 양상훈 선생님들께 축하드립니다. 경희사이버대학을 졸업하신 이희숙, 이현인 선생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재미수필 유튜브채널이 백회를 맞이합니다.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이현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리나>